

서평

오혜진 | '여공문학', 불온하고도 화려한 성채

서평

‘여공문학’, 불온하고도 화려한 성채

: 『여공문학—섹슈얼리티, 폭력 그리고 재현의 문제』(루스 배러클러프, 김원·노지승 역, 후마니타스, 2017, 1-368쪽)를 읽고

오혜진*

‘여공 이야기’를 읽는 몇 가지 방식

그저 우연만은 아닌 채로 오랜 기간 이어져온 저자와 한국의 민남의 산물인 『여공문학—섹슈얼리티, 폭력 그리고 재현의 문제』는 그간 한국에서 전개돼온 ‘여공’ 연구사에서 매우 독특하고도 이채로운 자리를 차지한다. 이 책은 여공에 ‘관한’ 재현부터 여공에 ‘의한’ 재현까지를 통틀어 ‘여공문학’이라 호명하면서도 궁극적으로는 ‘여공문학’이라는 범주를 “여성 노동계급의 글쓰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17쪽)를 탐구하기 위한 질문의 범주로 삼았다. 그것은 1920~1990년대까지 꾸준히 지속됐지만 간헐적으로만 가시화돼온 어떤 글쓰기의 종류와 그 성격에 대한 물음이다.

이 책은 ‘여공’이라는 역사적·문학적 주체에 대한 연구에 으레 부착돼 온 통념을 처음부터 조금 배반한다. 이 책이 밝히려는 것은 ‘한국 문학작품에 나타난 여공 표상 연구’ 같은, ‘정통적인’ 한국 문학사 연구에서 안전하게 택해져온 주제가 아니다. 민중민족운동으로 수렴되는 노동사 연구¹⁾의 일환을 담당하는 것에도 목적이 있지 않으며, ‘여공’ 담론을 형성해온

* 성균관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수료

1) 구혜근, 『한국 노동계급의 형성』, 창작과비평사, 2002, 1-340쪽.

주류 지식의 단절과 비균질성을 드러내거나,²⁾ ‘아래로부터의 문학사’의 문체의식처럼 그간 ‘정통’ 문학사에서 배제돼온 새로운 문학사적 주체의 발굴과 복원을 통해 주류 문학사를 상대화하는 일³⁾을 전면적이거나 유일한 문체의식으로 내세우지도 않았다. 이 책의 초점은 그보다 훨씬 더 평이하거나 원대한데, 저자는 “여공들이 한국 근대문학과 산업화된 한국사회에서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화적 인물로 형상화되는 과정을 검토”(15쪽)함으로써 “산업화의 외상trauma”인 여공의 경험과 글쓰기를 통해 “산업화 시기의 삶에 관해”(21쪽) 더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랐다.

이를 위해 이 책이 신중하게 배제하고자 한 관성적인 연구경향 혹은 원칙을 적어둔 대목이 눈에 띈다. 그간 “여공에 대한 수많은 재현에 내재된 위선적인 오미주”(21쪽)를 경계할 것, “한편으로는 가부장적인 한국사회에서 배제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을 착취하는 자본주의사회에 포획된 존재”라는 여공에 대한 모순된 재현(21쪽)을 침묵하게 의식할 것 등이다. 이때 저자가 키워드로 선택한 것은 ‘섹슈얼리티, 폭력, 문학’인데, 이 책은 여공들을 “굴욕적이고 비참한 존재로 묘사하는 것이 문학적 장치 가운데 하나가 되어감에 따라” “여성 노동계급의 주체성을 어떻게 묘사할 것인지”(22쪽)를 고민한 여공문학 작가들의 글을 다뤘고, 저자 자신의 고민 또한 그와 같았다.

‘여공서사’라는 문화적 아카이브

‘여공의 발명’이라 이름 붙여진 1장은 여공을 근대의 ‘이국적’ 존재로 묘사한 식민지기 자료를 독해하는데, 이때 여공에 관한 보도기사들은 공장노동과 성폭력의 “연결고리”(57쪽)를 만드는 원형적인 자료로 등장한

2) 김원, 『여공 1970—그녀들의 반역사』, 이매진, 2005, 1-860쪽.

3) 천정환, 「서발된 쓸 수 있는가—1970~80년대 민중의 자기재현과 “민중문학”의 재평가를 위한 일고」, 『민족문학사연구』 47, 민족문학사연구소, 2011, 224-254쪽.

다. 이 자료들에 나타난 여공과 성폭력에 대한 재현은 “서로를 잠식”(46쪽)하는데, 그것들은 공장에서의 수많은 성적 위협intimidation을 언급하지만 정작 그런 폭력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는 불투명하게 서술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자는 1930년대 프로문학이 여성노동자들의 섹슈얼리티 문제를 다루는 데 실패한 것은 공장 내 성폭력과 젠더폭력에 개입된 애매한 정치학ambiguous politics을 잘 다루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이런 상황에서 여공 스스로가 자신을 재현한 사례는 극히 소수인데, 이는 당대 ‘문해력의 경제’와 관련 있다. 식민지기 3대 공장이었던 방직공장, 식품가공공장, 화학약품공장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압도적인 비율에서 보듯 식민지 산업화에서 여공이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했음은 분명하지만, 1930년 조선총독부의 조사에 따르면 조선인 여성의 92퍼센트가 문맹이었다(79쪽). 그렇다고 할 때, 대중미디어에 드물게 등장했던 여공의 목소리가 “봉건적이고, 농촌적이며 가부장적인 유대관계”(67쪽)에 얽매인 채 독자들의 자비를 요청할 뿐 동료 노동자를 불러내는 데까지 이르지 못한 것은 놀랍지 않다. 물론 그럼에도 학교교육의 확대와 더불어 “글쓰기의 프롤레타리아화”(93쪽)는 점차 확산됐고, 저자는 이것이 곧 여성노동자에 의한 문학 생산의 기반이 됐다고 확신한다.

2장 ‘유혹의 이야기’에서 저자는 여공에 대한 성폭력을 여공들의 수난사, 혹은 공장노동자들의 각성의 계기로만 등장시킨 식민지기 문학작품들이 여공들에게 정치적인 목소리를 부여하는 데 무관심했음을 지적한다. 오히려 저자는 여공들의 섹슈얼리티는 주체들 간의 유혹seduction과 공모의 대상일 수 있었고, 그런 메커니즘 자체가 여공들에 대한 지배와 통제의 수단이자 효과일 수 있다는 점이야말로 당대의 리얼리티에 가깝다고 판단한다. 이를 섬세하게 간파한 것은 식민지의 여성작가 강경애인데, 그녀는 여공을 성적 희생양이나 남성운동가에 의해 각성되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식민지 근대성을 체현한 신여성”(118쪽)으로 묘사함으로써 “강간의 정치학보다는 공모의 경제학”(130쪽)에 가까운 공장 내 젠더

관계를 재현하고, 그 과정에서 여공들이 스스로 각성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했다. 저자가 보기에 강경애는 “여성의 노동을 착취하는 그 생산시스템이 다른 한편으로는 그 시스템에 대한 비판을 가능하게 하는 데 필수적인 문화적 자본”(142쪽)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적시한 드문 사례였다.

3장 ‘서울로 가는 길’은 주로 문학운동에만 머문 식민지기 프롤레타리아 아방가르드에 비해 노동자운동의 등장을 배경으로 훨씬 자신감 넘치고 문화적으로 활기찼던 1970~1980년대의 노동문학을 조명한다. 당대 노동문학의 작가들 중 대다수는 “진짜”(148쪽) 프롤레타리아였으며, 이는 곧 여공들이 주체로서 노동운동과 문학에 구성하는 방식, 즉 당대 사회와 문학에 대한 급진적 도전 속에서 “정치적 재현과 문학적 재현을 결합시키는 행위”(150쪽)의 조건들을 형성했다. 당대 여성들의 자전적 수기는 문해력이 있는 노동자계급과 중간계급 출신 독자들을 대상으로 쓰였다.

그러나 섬유·의류·신발·전자 등 당대의 경제성장을 이끈 주체는 여공이었지만,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에 근거한 여성 노동계급의 경제적·정치적 주변화는 한국 자본주의 발전의 핵심전략이기도 했다(154쪽). 이런 상황에서 저자는 당대 여공들의 문학적 글쓰기와 노조운동의 궁극적 의의를 새롭게 추출하는데, 그것은 단지 자본주의사회로부터의 해방을 꿈꾸는 데 그친 것이 아니라 “여공들을 급속한 산업화가 진행 중인 국민국가 의 정식 구성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문화적 맥락으로부터 스스로를 해방시키기 위한 투쟁(156쪽)이었다는 것이다. 여공들이 이 사회가 자신들을 “정숙한 여성으로도, 진정한 노동자로도 바라보지 않는 젠더와 계급 이데올로기”(157쪽)로 포획하고 있음을 알았을 때, 이들은 스스로를 더 잘 재현하기 위한 글쓰기에 몰두했다. 특히 여공들을 성판매여성 등의 하층 여성노동자들과 함께 “산업전사”라고 추켜세우면서도 ‘타락한 여성’이라는 도덕적 낙인을 찍는 당대의 오랜 관성은 “가부장적 보호하는 은신처를 거부”하거나 “남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여성을 “쉽게 더럽혀질 수 있는 존재”(186쪽)로 간주하는 한국의 가부장적 가족주의와도 무관하지 않았다.

이런 상징의 감옥을 벗어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아서, 당대 여공들의 글쓰기에서는 여전히 그들이 해체하려 했던 젠더와 계급 이데올로기가 재생산되고 있었다. 그녀들이 급진적인 투쟁의 목소리와 복고적인 노예의 말을 섞어 사회에 흡수했던 것은 “여성의 연약함이라는, 한국사회에서 지배적이지 문화적으로 두드러진 이미지를 이용”해야 했던 여성들의 “정치적 언어의 빈곤” 및 “반공주의 국가의 병리적 증상”(214쪽)과 관련 있다.

하나 그 와중에도 여공들은 “노동계급 여성성”(222쪽)이 지닌 딜레마에 대한 자기탐구를 지속했는데, 이는 어렵게 획득한 교육기회, 상층계급 출신 남성과의 연애와 같은 화소들로 구성된 로맨스 양식의 생산을 통해 수행됐다. ‘슬럼 로맨스’라는 제목의 4장은 자신들이 읽었던 서구 고전 로맨스의 문법을 전유해 자전적인 서사를 구성한 여공들의 문학적 글쓰기를 사회의 망각에 대해 스스로 자아를 구성하고자 했던 시도로서 조명한다.

단적으로 말해 ‘사랑에 빠진 공순이’의 서사에 짙은 음영을 드리운 것은 거리의 “로맨스 경제(성매매)”, 즉 계급 간 분할을 예비하고 있는 위험한 연애담이었다. 당시 확산된 노학연대는 노동자와 지식인 간의 “지식의 흐름flow of knowledge” 및 다른 계급에 대한 호기심과 계급이동을 향한 욕망의 교환을 가능케 했지만, 그 이야기는 늘 비극으로 끝난 그만 큼 결국 여공들에게 ‘대학생’과 ‘성판매여성’에 대한 해소할 수 없는 도착적 인식을 초래했다. 여공작가들이 모종의 ‘여성스러움womanhood’이라는 규율을 중심으로 당대 여대생에 대한 질투를 강렬하게 묘사한 반면, 성판매여성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하거나 애써 그로부터 구분되려 한 것이 그 반증이다. 흥미로운 것은 저자가 당대 여공수기가 ‘빈곤의 성정치’라는 주제를 전면화함으로써 대학생 혹은 남성지식인의 문화적 권위에 도전하는 기획일 수 있었음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그 글들이 탐구한 것은 계급과 섹슈얼리티가 불가분의 관계로 얽혀 있다는 점뿐 아니라, 어떻게 여성 노동계급이 “가난이 숙명이라는 관습적 사고를 거부”(275쪽)할 수 있었는가에 대한 ‘깨달음’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소녀의 사랑과 자살’이라는 제목의 5장은 1990년대 정전의 반열에 오른

신경숙의 『외딴방』에 대해 지금까지의 그 어떤 연구사와도 견줄 수 없는 독보적인 해석을 내놓은 이 책의 백미다. 이 장에서 저자는 『외딴방』을 “여공 스스로가 어떻게 작가가 되었는지”(279쪽)를 말해주는 작품으로 읽었는데, 그것은 그 자신 여공이었던 작가가 클리셰로 점철된 여공에 대한 지배담론에 전면적으로 도전하며 “사춘기 여성의 섹슈얼리티와 자살”(280쪽)이라는 비전형적인 화소들로 자기서사를 구성함으로써 가능했다.

저자는 『외딴방』의 독창성이 끊임없이 동성애적 뉘앙스를 띄고 있는 사춘기세계를 묘사하면서도 끝내 동성애적 장력과 거리를 둔 채 하층여성을 둘러싼 이성애사회의 규율담론에 ‘자살’로서 응답한 비전형적 여공인 ‘희재언니’를 불러낸 데 있다고 분석한다. 희재언니는 성애화된 여성성을 강요받지만 끝내 성적 주체여서는 안 된다는 하층 여성 노동계급의 딜레마를 현시한 존재였으며, 서술자인 ‘경숙’은 성에 대한 고의적인 무지와 유보를 통해 그 ‘통제’와 ‘봉인’에 공모함으로써 시대의 죄책감을 떠맡은 인물이었다.

『외딴방』은 “노동운동에 참여하는 것”이 “노동자가 주체가 되는 유일한 방법”(305쪽)이었던 시절에 교육과 노조활동의 배면에 있는 여공의 내면성을 재현함으로써 “통상적인 성장소설”(306쪽)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것이 저자의 판단이다. 그리고 이는 곧 노동자의 파토스를 ‘청산함’으로써 부채감에 시달려야 했던 1990년대 독자들에게 일종의 ‘알리바이’를 제공했는데, 바로 이 점이야말로 『외딴방』이 “모두가 흡족해 하는, 여공에 대한 이야기”(309쪽)로 읽힐 수 있었던 요인임은 분명하다. 그런 면에서 『외딴방』이 “혁명”과 “계급 고착화에 대한 두려움”을 모두 보여주면서, 사회적으로 비가시화되고 여공들 스스로도 미처 의식하지 못했던 그들의 “문화적 아카이브의 존재”(326~327쪽)를 암시함으로써 ‘계급화된 지식의 보고’이자 “한국 노동문학 최후의 걸작”(328쪽)으로 남을 수 있었다고 규정된 저자의 통찰은 산업화시대에 겪은 ‘외상’의 기록으로서 ‘노동문학’이 지닌 의미를 탁월하게 짚어낸 것이다.

남은 물음들

문화연구자 천정환은 저자의 『외딴방』론을 인용하며 『외딴방』의 독보적인 문학적 권위를 구성하는 대부분의 서사적 자원들은 이미 ‘수많은 신경숙들’, 즉 ‘상투적’이라는 이유로 문학적 시민권을 획득하지 못한 다수의 노동수기들에 내포된 ‘상투성’에 기인함을 논한 바 있다. ‘지적 격차의 문화사’의 관점에서 볼 때, ‘상투성’의 문학적 함의야말로 ‘문학성’에 기입돼야 할 가치⁴⁾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다. 그런데 여기에 덧붙여본다면, 이 책이 택한 방식은 노동수기에 내포된 ‘상투성’의 가치를 그 자체로 옹호하기보다, 그 모든 클리셰들은 “급속한 산업화의 혜택과 그들이 치러야만 했던 비용(혹은 희생) 사이의 충돌을 누구보다도 날카롭게 이해한”(149쪽) 주체들인 여공이 가장 열렬하게 선택하고 지지했던 자기탐구의 양식이자 장치였다고 주장함으로써 그것들을 그간 우리에게 해독되지 않았던 새로운 “문화적 아카이브”로 재호명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나 저자가 ‘여공문학’의 영토화를 세심하게 경계하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이 책은 종종 특정 개념으로 사태를 과잉 또는 과소 규정하는 양상을 보이는데, 이는 결국 ‘여공’이라는 역사적 주체의 존재방식과 그 문학적 구현물이 문화적 시민권을 획득하는 방식에 대한 의문으로 이어진다. 예컨대 이 책의 3장은 고향을 떠나 교외 공단지역의 문물을 경험했던 여공들이 자신의 고향세계를 곱씹는 대목을 서술하며, 이를 “노동계급 여성들이 자신들이 살고 있는 세계를 해석하는 새로운 방식을 터득하게 만들었”음을 보여주는 장면으로 제시한다. 그리고 이는 곧 “낯은 사회와 그것에 대한 대안을 사고하는 노동계급 급진주의와 “노동 페미니즘”의 탄생”(173쪽)으로 의미화된다.

그런데 ‘노동페미니즘’이 그 역사적 함의에 대한 부연설명 없이 단편적

4) 천정환, 앞의 글 및 『서발턴은 쓸 수 있는가—‘문학과 정치’를 보는 다른 관점과 민중문학의 복권』, 천정환·소영현·임태훈 편, 『문학사 이후의 문학사—한국 현대문학사의 해체와 재구성』, 푸른역사, 2013, 1-491쪽.

으로만 언급되는 이 서술은 어딘지 부족하다. “노동페미니즘”이 “노동계급 정치와 여성 노동계급의 삶에 초점을 맞춘 페미니즘”을 의미한다는 각주의 설명이 제시돼 있긴 하지만, ‘노동 페미니즘’과 ‘노동자’라는 당사자성의 관계, ‘노동페미니즘’이라는 이데올로기가 당대 여공들의 주체화 방식과 맺는 관계에 대한 설명은 생략돼 있다. 실제로 이 책에서 ‘여성들의 글쓰기’가 거치는 중요한 역사적 결절점으로서 ‘동료노동자에게 말 걸고 있는가’라는 기준을 거듭 제시하고 있음을 떠올려본다면, 여성노동자들의 연대와 네트워크가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정치화’의 효과에 대해 이 책은 기이할 정도로 유보적이다. 어쩌면 이는 신경숙이 『외판방』에서 “노동운동이라는 고도의 정치적 사안을, 그녀가 전혀 알지 못했던 인물들에 대한 회상으로 급격히 대체해 버린”(306쪽) 것처럼, 저자 자신 또한 노동사라는 전형적인 서사에 굴복하지 않으려 한 나머지, 여공문학의 실질적 계기였던 수많은 정치적 모멘텀들을 당대 비가시화된 여공주체들의 ‘마음의 풍경’을 묘사하는 것으로 대체한 것은 아닐까. 그리고 이는 결국 ‘여공의 글쓰기’를 추동한 아래로부터의 대중운동이 지닌 ‘집단성’을 문학작품이라는 ‘개인의 산물’을 경유해 묘사하게 됨으로써 필연적으로 ‘개인의 내면’을 상징하는 근대문학의 문법과 은밀하게 교호하게 된 것은 아닐까.

한편, 여대생과 성판매여성에 대해 여공들이 보인 양가적인 감정의 의미를 단지 한국식 가부장주의에 복속된 여공들의 주관적 체험과 관련해서만 분석한 대목은 다소 애매해 보인다. ‘여성의 가정주부화’는 필연적으로 ‘다른 여성의 매춘화’를 통해 달성되고, ‘여성의 매춘화’ 역시 ‘다른 여성의 가정주부화’ 없이 가능하지 않다는 마리아 미즈⁵⁾의 통찰을 떠올려본다면, ‘여대생’과 ‘성판매여성’ 및 ‘여공’들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불균질한 담론은 한국식 “유교 자본주의”(186쪽)의 신화에 근거한 것이라기보다, 여성의 성을 자원화함으로써 이성애사회의 ‘정상성normality’을 수립하고 이윤획득을 도모했던 가부장제 자본주의의 메커니즘 그 자체다. 이

5) 마리아 미즈, 『가부장제와 자본주의—여성, 자연, 식민지와 세계적 규모의 자본축적』, 최재인 역, 갈무리, 2014, 1-496쪽.

를 간과한 채, 한국의 전통적인 가족제도에서 “여성은 남성에 의해 재현되고 보호받아야 할 존재일 뿐, 자신을 스스로 드러낼 필요가 없는 존재”(188쪽)였다고 단언하는 것은 가부장제 자본주의의 본원적 축적과정의 메커니즘을 자칫 특수하게 종속화된 동아시아만의 현상으로 손쉽게 치환할 혐의가 있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1970년대 여공의 출가동기와 취업욕망을 상세하게 분석한 김원⁶⁾의 연구에서 보듯, 당대 미성년자 여공들은 단지 전통적인 ‘효’의 화신이자 부모·형제 봉양의 의무만을 떠맡은 희생양이 아니라 나름의 욕망과 전략을 수립해 삶을 타개해나가는 능동적 주체였다.

*

물론 그럼에도 『여공문학』은 여러모로 모범적인 사례다. 이 책은 반드시 ‘정치적 주체’로 성장하는 목적론적 시간관에 부합해야만 역사적 시민권을 부여해온 통념적인 민중사 또는 여성사 연구의 강고한 문법에 굴하지 않았다. 여공들의 경험과 일상세계에 대한 탐구를 일종의 ‘필드 연구’로 간주하는 문화인류학적 관점을 통해 미시사와 일상사를 시도한 것도 아니며, 주류 역사에 대한 대항서사를 만들겠다는 선험적인 문제의식의 개입도 섬세하게 조율했다.

그러면서도 이 책은 대부분이 문맹이었던 식민지기부터 ‘문학소녀’로까지 성장한 1980년대 여성노동자들의 ‘앓(애의 욕망)의 확산’과 그에 비례하는 자기탐구의 욕망이 내포한 정치적 가능성의 최대치를 가늠하게 했다. 그럼으로써 이 책은 당대 여성노동자가 처했던 역사적 조건을 차분하게 드러내는 동시에 ‘여공문학’이 당대 기율처럼 확보돼 있던 문학적 권위에 대한 치명적인 도전이자, 노동문학·민중문학의 하위범주로서만이 아니라 그 자체로 한국 산업화시대를 겪어온 한국인들의 정치적 무의식

6) 김원, 앞의 책.

을 가장 호소력 있게 발설하는 증언의 형식일 수 있음을 설득력 있게 묘사했다.

자신의 지식을 ‘계급화된 것’으로 이해하고, ‘자신과 다른 계급의 이야기’를 읽는 것은 언제나 중요한 사회이해의 한 방식이자 사회변혁의 기본 조건이다. 그러므로 ‘여공문학’이 여공들의 글쓰기를 특정 거대담론에 복무하는 소재가 아니라, 이 사회의 “미묘한 의미와 형상화를 민감하게 알아차릴 수 있는 민감한 독자들”(335쪽)에게 공유된 비밀로 간주될 수 있었다는 것은 어찌면 축복이다. ‘다른 계급의 삶과 말 앞에 고개를 주억거리며 서보는 일’, 그것이 지닌 은밀하고도 불온한 힘을 믿을 때에만 견고한 카스트제도처럼 보이는 이 사회는 아주 조금씩 불안하게 흔들리기 때문이다. ‘여공문학’과 이 책 『여공문학』은 바로 그 계급이동예의 불안과 매혹이야말로 산업화된 신체에 미쳐 고박되지 않은 ‘인간성’의 한 징후임을 열렬하고도 뼈아프게 보여주었다.

참고문헌

1. 단행본

구해근, 『한국 노동계급의 형성』, 창작과비평사, 2002, 1-340쪽.

김원, 『여공 1970—그녀들의 반역사』, 이매진, 2005, 1-860쪽.

마리아 미즈, 『가부장제와 자본주의—여성, 자연, 식민지와 세계적 규모의 자본축적』, 최재인 역, 갈무리, 2014, 1-496쪽.

2. 논문

천정환, 「서발턴은 쓸 수 있는가—1970~80년대 민중의 자기재현과 “민중문학”의 재평가를 위한 일고」, 『민족문학사연구』 47, 민족문학사연구소, 2011, 224-254쪽.